



‘마흔다섯’ 이집트 엘-하다리 월드컵 최고령 4관왕 신기록



엘-하다리

이집트 골키퍼 에삼 엘-하다리가 월드컵 최고령 부문 4개 신기록을 동시에 작성했다. 엘-하다리는 25일(한국 시간) 볼고그라드 아레나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A조 조별리그 3차전에 45세 161일의 나이로 이번 대회에 처음 선발 출전해 90분 동안 피치를 밟았다.

이전까지 월드컵 최고령 출전 기록은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콜롬비아 골키퍼 파르데 몬드라곤이 작성한 43세 3일이다. 몬드라곤은 2014년 6월 24일 일본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선발 다비드 오스파나에 이어 후반 40분 교체 출전했다. 3-1로 콜롬비아가 크게 앞선 상황이라 골키퍼를 교체할 이유는 없었지만 베테랑의 신기록 달성을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A매치 통산 최다출전 기록을 보유중인 이집트 주장 엘-하다리는 25일 경기로 최고령 주장, 월드컵 본선에 데뷔한 최고령 선수, 월드컵대표팀에 뽑힌 최고령 선수 등의 기록도 함께 세웠다. 1973년생으로 한일월드컵의 영웅 이운재와 동갑인 엘-하다리는 200경기 가까운 A매치 출전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첫 월드컵 본선 경험이다.

하지만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손에 쥘 것은 없었다. 이집트는 사우디에 1-2로 져 3패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이집트의 주전 골키퍼는 29세의 모하메드 엘-세나위로 엘-하다리는 이미 16강 진출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코칭스태프의 배려 덕에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김종건 전문기자

스토리 월드컵 | 아시아 축구의 길 보여준 ‘실리축구의 달인’ 이란 케이로스 감독



침대축구+질식수비+역습 강호들 꿈꿨던 ‘뉴 축구’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이란이 26일(한국시간) 모로코 모로코 아레나에서 벌어진 포르투갈과의 2018러시아월드컵 B조 3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케이로스 감독이 지휘한 이란의 ‘뉴 축구’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탈아시아급으로 격상됐다.

모로코 제압·포르투갈과 대등한 경기 약자가 강팀 잡는 ‘새 변칙 전술’ 주목 16강 실패했지만 아시아 맹주로 우뚝

‘뉴 축구’ 이란이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아쉽게 퇴장했다. 26일(한국시간) 사란스크의 모로코비아 아레나에서 벌어진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포르투갈과 1-1로 비겼다. 1승1무1패, 승점 4의 이란은 스페인, 포르투갈(이상 1승2무·승점 5)에 밀려 조 3위로 16강행 티켓을 놓쳤다.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란은 ‘뉴 축구’로 통칭되는 질식수비를 앞세워 우

승후보 스페인(0-1 패), 포르투갈과 대등하게 싸웠다. 유럽파로 구성된 북아프리카의 강호 모로코는 1-0으로 제압했다. 승점 3점만으로도 16강행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한국의 ‘희망고문’과는 결이 다른 축구를 조별리그에서 보여줬다. 이 같은 성과는 2011년 4월부터 이란을 이끌고 있는 카를로스 케이로스(65) 감독의 지도력을 빼고는 설명하지 못한다.

케이로스 감독이 취임하기 전 이란은 볼세추의 스트라이커 알리 다에이(49)를 앞세워 아시아 최강의 공격축구를 뽐냈다. 다에이는 1996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4골을 터트리며 이란의 6-2 대승을

연출하는 등 2006년 은퇴할 때까지 A매치 149경기에서 무려 109골을 뽑았다.

포르투갈 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사령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수석코치 등을 역임한 케이로스는 이란을 실리축구의 달인으로 변모시켰다. 수비벽을 촘촘하게 세워놓고 역습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침대축구’라는 비난을 사긴 했지만, 적어도 아시아권에선 난공불락의 강팀이 바로 이란이다. 한국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무1패를 포함해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1승3무5패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통산 9승8무13패).

케이로스 체제에서 이란은 아시아의 맹주가 됐고, ‘뉴 축구’는 약자의 전술을 넘어

이란 특유의 컬러가 됐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이란이 처한 현실 또는 상황과도 닮은꼴이어서 눈길을 끈다. 1970년대 말 주이란미국대사관 인질 사건과 최근의 이란 핵합의 파기 사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란은 미국도 어찌지 못하는 나라다. 종파 갈등이 결합된 중동정세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이다. 국제정치의 ‘이단아’이자, ‘뉴’이 바로 이란이다.

‘뉴 축구’의 창시자로 러시아에서 ‘승장 같은’ 패배가 된 케이로스는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이란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과거 몇 차례 퇴진의를 밝히고도 번복했던 케이로스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⑥

나치 제안 거절한 진렐라 1939년 자택에서 의문사

제1·2회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이탈리아의 우승으로 개최국이 우승에 얼마나 유리한지 입증했다. 1938년 제3회 대회를 앞두고 또 개최와 관련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가 개최신청을 했다. 독일은 나중에 철회했다. 1936년 FIFA의 54개 회원국 중 40개국이 프랑스에 찬

성표를 던졌다. 유럽과 남미가 번갈아가며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원칙을 주장했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이 결정에 반발했다. 대회를 보이콧했다. 투표 결과는 FIFA를 이끌어온 줄 리베 회장을 향한 반발로 해석됐다.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는 1936년 올림픽도 차지했다. 포조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이전보다 더 강력했다. 유럽의 불안정한 정치환경 때문에 변수가 생겼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히틀러는 월드컵 우승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주축 선수들을 독일 대표팀으로 출전시키려 했다. 가장 탐낸 선수는 원더팀의 상징 마티아스 진렐라였다.

호리호리한 체격이어서 별명이 ‘인간종이’였던 진렐라는 오스트리아 황금시절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사랑 받았다.

원더팀은 1937년 1월 24일 프랑스와의 친선경기가 마지막이었다. 2-1로 이긴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회 대회에서 1골을 넣었던 진렐라는 나치의 월드컵 참가 종용을 거부했다. 그는 36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1939년 1월 23일 자택에서 여자친구 카밀라 카스타놀라 곁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은 오스트리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미스터리 사건이었다. 나치는 조사 결과 사고사라고 발표했다. 물론 누구도 믿지 않았다.

FIFA는 오스트리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잉글랜드축구협회에 월드컵 출전을 부탁했다. 잉글랜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 아시아대표로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출전했다. 일본도 참가신청을 냈지만 중일전쟁으로 지역예선에 나가지 못해 불수케임 처리됐다. FIFA는 동인도-미국의 승자가 본선에 나간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출전을 포기했다. 결국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예선도 치르지 않고 제3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서 월드컵 본선을 경험한 첫 아시아국가가 됐다.〈계속〉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 통가족 이라 정말 부드럽고! 시원하다!!



통풍성이 좋고 발이 편한 망사 신사화

모델명 : V-13
색상 : 블랙
재질 : 코팅소 가죽

기능성 신사화 인증 특허! (특허 제 28456 호)

바람이 술술~~~~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할인가 : 39,800원

모델명 : V-14
색상 : 블랙
재질 : 코팅소 가죽

세련된 디자인에 통풍성과 위생까지!! 한 올 한 올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만든 망사 수제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우수한 통풍성으로 신발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발냄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준다. 부드러운 코팅소 가죽 재질로 발이 편하고 감촉이 좋아 장시간 신어도 불편함이 없다. 정장은 물론 캐주얼 복장에도 잘 어울리며 조경량으로 매우 가볍고 중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정통 망사 신사화로 인기가 높다.

새털같이 가벼운 초경량 260g

할인가 : 29,800원

(단, 3일간 한정판매)

(2컬레 이상 구입시,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mm

※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 제품 하자시 6개월 무상 A/S

모델명 T-2 (블랙)

모델명 T-3 (브라운)

모델명 T-4 (블랙)

모델명 T-6 (블랙)

신는 느낌이 다릅니다!

정장, 캐주얼, 청바지, 어떤 복장에도 OK!
장시간 운전, 많이 걸을 때, 편안복장에도 OK!

통가족 신사화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장시간 보행시에도 발의 피로를 현저히 줄여주며 특히 부드러운 외피는 발볼이 넓고 발을 조이지 않아 일반 신사화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착화감을 보여주며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정장 및 캐주얼 복장에도 잘 어울립니다.

모델명 T-1 (브라운)

가볍고 부드럽고! 바람 잘 통하구요!

NAVER **검색결과** 진수테크쇼핑 **을 추천해요**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 전제품 2컬레 이상 무료배송